

민수기와 신명기

검토

II. D. 12. D. 남자들은 번호와 위치가 할당되었습니다

우리가 중단한 곳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난 세션에서 우리는 민수기의 초기 장에 나오는 인구 조사 수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개요에 있는 로마 숫자 II., D.12., d., "남자들은 번호가 매겨지고 위치가 지정되었습니다." 나는 그 토론의 세부 사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군대의 규모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기초하여 특정한 성경적 진술(예를 들어, "가나안 땅에서 당신보다 강한 일곱 나라")에 대해 제기된 질문이 있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리고는 7에이커입니다. 일반 인구가 200만 또는 300만 명인 "600,000명의 전사"를 영어 버전으로 번역한 사용된 언어를 우리가 정말 이해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토론이 끝날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라틴어 문구의 범주에 속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인용한 41페이지의 단락에 당신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당신에게 그것을 언급함으로써 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R. K. Harrison의 *구약 소개*, 민수기의 인구 조사 숫자 해석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의 결론에서 그는 "구약 성경의 숫자를 축소하려는 이러한 시도 중 어느 것도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번역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엘레프 "족장" 또는 "텐트 그룹"* - 마지막에 숫자를 합산하는 데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안된 솔루션으로는 모든 데이터를 만족스럽게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제안은 해석의 목적을 위해 균일하게 균형 잡힌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숫자에 관한 근동 출처의 다른 증거가 이 행동에서 어떤 가치가 있다면, 구약성서의 수치적 확증이 고대인들에게 매우 친숙하지만 현대 학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실재에 근거할 것임을 암시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문제를 떠날 곳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참고문헌의 일부 참고문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야 할 상당한 양의 토론이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질문이 있으십니까?

12. 다. 레위인에게 번호를 매기고 임무를 부여하다 - 민수기 3:1-4:49

좋아, c. 12절 이하. 민수기 3장을 보면 1절 시작 부분과 그 뒤에 나오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제사장 아론에게 주어 그를 돕게 하라. 그들[레위인]은 회막에서 그와 온 회중을 위하여 성막의 일을 하여 회막에서 직무를 행할 것이요 그들은 회막의 모든 기구를 돌보며 성막의 일을 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 일을 행할지니라.”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고, 그 일을 함에 있어 그들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장자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1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요 처음 난 자도 다 내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음송아지 사건 당시 모세와 함께 서게 된 레위 지파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식으로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거 창세기에서 그들은 지파의 유산을 받지 못했을 때 야곱의 축복에서 저주를 받았지만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이 중요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가족의 각

말아들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도 세어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며 꽤 빨리 인구 조사 문제로 되돌아갑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레위인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대로 계수하라. 일 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세어라.” 3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좇아 레위인의 계수함을 그들의 가족대로 계수하니라. , 22,000이었습니다.”

이제 44쪽에 있는 J. J. Davis의 인용문을 보십시오. 그의 책에서 성경 수비학, 그는 말아들과 관련하여 이 숫자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는 실제로 민수기 3장 40-49절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2,000명의 레위인 뒤에 더 나아가면 43절에 “생후 1개월 이상 된 처음 난 남자의 총계는 22,273 명이었습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레위인보다 말아들이 273명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했고, 46절에서 당신은 레위인의 수를 초과한 273명의 처음 난 이스라엘 사람을 속량하기 위해 각각 5 세겔을 징수할 것이라고 읽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지파들 사이의 말아들에 대한 데이비스의 논평으로 돌아가 봅시다. “민수기에서 맞닥뜨린 더 당혹스러운 문제 중 하나는 지파들 중 처음 난 자의 총합입니다. 구속을 목적으로 한 인구 조사에 의하면, 각 지파의 모든 장자는 모두 22,273명에 불과하였다.” 그것이 42절과 43절입니다. 전국의 모든 장자는 남자 40~50명에 장자는 한 명뿐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꽤 큰 가족입니다. "이는 한 가족의 모든 아버지가 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39~44명의 아들을 낳았거나 여전히 낳았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구에서 말이의 비율은 1에서 4입니다.

이제 다음 단락에서 Davis는 구약에 대한 오래된 고전 주석 시리즈에서 C. F. Keil과 Franz Delitzsch를 언급합니다. 그들은 이 말아들의 수는 단지

13개월의 공간 또는 출애굽과 율법이 주어진 시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의 수를 나타낸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문제를 처리합니다. 위의 통계에 근거하면 1년에 약 19,000명의 말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역사적 상황의 개연성에 따라 숫자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 본문의 43절로 돌아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생후 1개월 이상 된 첫 남자의 총 수는 22,273명 미만이라고 합니다. "최근 12개월에서 13개월 사이에 태어난 말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난 남자의 총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숫자들이 조합되는 방식과 사용되는 언어에 대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큰 점으로 집을 것입니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텍스트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텍스트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습니까. 질문이 있으십니까?

다. 질투의 법 - 민수기 5:11-31

d로 감시다. "질투의 법: 민수기 5:11-31"입니다. 이 섹션의 "질투의 법"이라는 제목은 실제로 특정 종류의 문제를 처리하는 절차를 설명한 후 섹션 끝에 있는 29절에서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질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인. 제사장은 이 율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14절로 돌아가면 이것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그녀의 남편과 그녀의 불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불리한 증인이없고 그녀가 행동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은 14 절이 문제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그의 아내를 의심하고 그녀가 더러움을 의심하거나 또는 그가 질투하여 그녀가 깨끗하지 않은데도 그녀를 의심한다면, 그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질투의

범입니다.

이것은 그런 종류의 경우에 따라야 할 절차를 제공합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이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남편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남편은 질투하지만 증거는 없지만 그녀는 유죄입니다. 또는 남자가 아내가 죄를 지었다고 의심하고 증거가 없지만 여자는 결백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는데 남편이 의심하는 사건이다. 그러한 경우에 따라야 할 절차가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는 범죄 혐의 자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남녀 모두에게 간음에 대한 사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여성의 무죄나 죄책감을 처리하여 근거 없는 질투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폭로 절차를 통해 불충실함을 억제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제 절차는 무엇입니까? 15절은 만일 이런 일이 있으면 남편은 그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그도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그 위에 유향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을 위한 소제요 죄과를 생각나게 하는 기억나게 하는 제물임이니라.” 그래서 15절에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16-18절에서 제사장은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그 제물을 그녀의 손에 맡깁니다. 16절은 “제사장은 그를 데려다가 여호와 앞에 서게 하고 그리고 질그릇에 성수를 담고 성막 바닥의 티끌을 그 물에 담을지니 제사장은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털을 풀고 생각나게 하는 제물 곧 질투의 소제를 그 손에 주고 자기는 저주하게 하는 쓴 물을 붙들고

그래서 그는 그 여자를 주님 앞에 세우고 그녀의 손에 제물을 드린 다음 19-22절에서 그 여자는 그녀의 무죄 또는 죄에 따라 주님이 그녀를 축복하거나 저주하기 위해 사용하는 맹세를 합니다. 19절,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맹세하게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과 동침한 일이 없고 행음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이 당신을 해치지 마십시오. 그러나 네가 네

남편과 동침하여 그릇 행하여 네 남편 아닌 남자와 동침하여 몸을 더럽혔으면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맹세의 저주를 내리노니 여호와께서 네 백성을 불러 저주하게 하시며 허벅지가 쇠약해지고 배가 부어오릅니다.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몸에 들어가 네 배가 부어오르고 네 넓적다리가 쇠약해지기를 원하노라. ” 이제 그 물은 성막 바닥의 먼지와 섞인 이 물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 먼지와 물의 혼합물을 마셨고 그 결과는 설명된 대로일 것입니다. 그녀가 결백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녀가 유죄라면 그녀의 넓적다리가 쇠약해지고 배가 부어오를 것입니다. 여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먼지와 물의 혼합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런 종류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전히 물리적 효과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성의 무죄 또는 유죄를 결정하기 위해 지정된 목적을 위해 이 절차를 승인한 하나님의 개입이 포함됩니다.

시련의 시험

이제 절차는 "시련에 의한 재판"으로 알려진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시련에 의한 재판"이라는 설명적인 용어를 들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련에 의한 시련은 오랜 세월을 걸쳐 많은 사람들로 부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기원전 1700년경)으로 가면 법률 132조에 "다른 남자 때문에 시민의 아내에게 손가락질이 있었지만 그녀가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것이 적발되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하여 그녀는 강에 몸을 던질 것입니다." 물론 그녀가 유죄라면 그녀는 익사할 것이라는 이론이었다. 그녀가 결백하다면 그녀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련에 의한 재판"입니다. 백과사전에는 "시련의 시험은 신의 개입에 의한 법적 증거이다. 정상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것의 역사를 보면 종종 물이나 불의 시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뜨거운 숯불 위를 걸어가야 했고, 그런 다음 일정 기간 동안 화상의 정도를 검사했습니다. 심한 화상이라면 죄책감을 나타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백을 나타낼 것입니다. 손을 불 속에 집어넣으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었고 유사한 검사를 통해 유죄 또는 무죄를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절차는 중세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시련에 의한 재판과 비교되었습니다. 배심원 제도 이전의 영국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시련에 의한 재판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말했지만 차이점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시련에 의한 재판에서는 무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유죄로 추정됩니다. 즉, 석탄 위를 걸으면 아마 화상을 입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련에는 일반적으로 무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즉 그 사람이 불이나 물에서 구출되지 않는 한 유죄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식은 정반대입니다. 유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무죄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위험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먼지가 섞인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허벅지가 썩거나 배가 부풀어 오르면 유죄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일반적으로 불리한 사회적 맥락에서 이와 같은 곳에서 따라야 할 절차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마련은 참으로 많은 면에서 여자에게 유익합니다. 수상한 남편이 자신의 사건을 입증하거나 비난과 의심을 단념하도록 강요하며 그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인식됩니다.

이자형. 나실인의 율법 - 민수기 6:1-21

자, e로 갑시다. “나실인의 법: 민수기 6:1-21.” 이에 대한 제목은 13절과 2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서 “이는 나실인의 법이니라”와 21절에서 “이는 나실인의 법이라.” 나실인의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실인의 율법은 남자든 여자든 제사장 직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주님께 드리는 특별한 헌신의 한 유형을 제공했으며, 제한된 시간 동안 주님께 자신을 구별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일종의 수도원주의나 금욕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자격이나 예외를 제외하고 사회에서 다소 정상적인 삶을 허용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결별 서원을 여호와께 하려거든 나실인,”” 그는 특정한 일을 해야 합니다. "Nazirite"라는 단어가 어근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보다*(*nzr*), "바치다 또는 분리하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근본 의미에 대한 유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구별되는 특별한 서약입니다.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는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 헌신하는 이 특별한 기간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은 포도나무 소산으로 난 것을 삼가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와 그 밖의 독한 술을 멀리하고 포도주로 만든 식초나 독한 독주를 마시지 마십시오. 그는 포도즙을 마시거나 포도나 건포도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나실인인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주님께 대한 헌신의 상징으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은 “그가 결별 서약 기간 동안에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구별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룩해야 한다. 그는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로 6절과 7절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과의 분리 기간 동안 그는 시체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가 죽더라도 그들 때문에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것이 나실인이 해야 할 세 가지 일입니다. 서원이 끝나면 각종 제사를 드리고 머리털을 깎고 그 털을

제단에서 불사름으로 서원 기간이 끝난다. 이것이 나실인의 법입니다.

나는 여기에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 카톨릭 교회에는 특히 신권을 위해 독신, 가난, 순결과 순종에 대한 서약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오랜 전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하십시오. 그 시스템은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특히 수도원 제도는 성경적 뒷받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신은 결혼보다 더 신성한 상태가 아니며, 정상적인 사회적 교류, 참여, 사회와 공동체 참여를 철회하는 것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보다 참된 종교의 영적 성장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특별한 서약에서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은 자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삼손이나 사무엘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완전히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정상적인 삶에서 완전히 철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약을 종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려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료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유대교에서 기간을 지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또는 6주 또는 2개월 등의 기간이 될 수 있지만 율법 자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프. 제단 봉헌식에서 방백들의 제물 - 민수기 7:1-89

하지만 f로 갑시다. 여기에 몇 가지 간단한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에프. "제단을 봉헌할 때에 방백들이 드리는 예물: 민수기 7:1-89"입니다. 나는 이것이 오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몇 구절입니까? 89절. 이제 아래를 훑어 보면 매우 반복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의 제단을 봉헌할 때에 각 지파의 대표가 드리는 예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4절을 보십시오: "제 삼일에는 스블론 자손의 족장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예물을

가져왔더니.” 그래서 스블론 지파의 대표가 예물을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그 제물은 25절부터 29절까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곡식 제물; 열 세겔 무게의 금접시 하나에 향을 채웠고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라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제물이었다.”

이제 다른 지파의 대표자들이 드리는 제물을 보면 모두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장은 매우 반복적이어서 "요점이 뭐죠?"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들의 제물이 기본적으로 동일할지라도 그들의 제물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각 사람과 각 지파와 그들이 가져오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후에 헌금을 드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g. 애굽을 떠난 후의 두 번째 유월절 -- 민수기 9:1-14

계속해서 g로 이동합니다. “이집트를 떠난 후 두 번째 유월절: 민수기 9:1-14.” 9장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이년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정한 때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라. 이 달 십사일 저녁에 그것을 기념하여라.’” 이제 그 때를 주목하십시오. 둘째 해 첫째 달입니다. 민수기 1:1로 돌아가십시오. 민수기 1장 1절은 “제이 년 이월 초하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한다. 1:1에서는 2년 2월 1일이지만 9:1에서는 2년 1월이다. 따라서 이것은 인구 조사에 관한 1장의 지침보다 실제로 더 빠릅니다.

그러나 이때에 일어나는 일은 그들이 둘째 해 첫째 달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아와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늘

어찌하여 정한 때에 다른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리이까 하매 유월절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의식적으로 부정하여 유월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기에 상충되는 도덕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입니다. 13절에 “만일 사람이 정결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정한 때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므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지니 그의 죄의 결과.” 그러나 레위기의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 보면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여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인데 너희가 부정하므로 지키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리고 모세는 모릅니다. 8절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알기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9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습니다. “너희나 너희 자손 중에 시체로 부정케 되거나 여행 중에 있는 자가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그들은 이월 십사일에 그것을 기념할 것이다.” 즉, 추후 날짜가 대안으로 제공됩니다. 민법과 의식법의 본질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이 협소하게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인식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완전히 구부러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27에서 말씀하신 것이 같은 지점에 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은 인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 두 가지 요구 사항 중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 및 상층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유월절 후 한 달 뒤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는 첫 번째 유월절에 몸이 더럽거나 여행 중이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간. 방향과 인도를 위한 신성한 준비, 이스라엘은 이제 시나이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H. under 12: "지시와 인도를 위한 신성한 공급,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에서 시나이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민수기 9:15-23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 "성막의 날에 증거의 장막이 세웠고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것을 덮었더라. 성막 위의 구름은 불처럼 보였고 계속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처럼 보였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걸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떠났습니다. 구름이 그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출발했고 그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인도하는 데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 조항은 민수기 10장 1-10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지파들의 움직임을 조정하기 위해 은 나팔을 제공하는 조항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은으로 두 나팔 두 개를 만들어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떠날 때에 그것으로 들 다 울리면 전체 커뮤니티가 모일 것입니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발할 때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한 두 가지 조항입니다

건너뛰기 e. 에프. 그리고 g.

e., f. 및 g 섹션은 건너뛰겠습니다. 수업 토론을 위한 개요에. 당신은 e

를 알 수 있습니다. "시나이에서 모압 평야까지: 민수기 10-22장"입니다. F.는 "발람 사건: 민수기 22-25장"입니다. 그곳은 모압 왕 발락이 이방 점쟁이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몇 가지 논평을 하고 싶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나는 e., f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지. G.는 "가나안 진입을 위한 준비: 민수기 26-36장"에서 광야 방랑 기간의 마지막에 새로운 인구 조사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합니다.

에프. 발람 오라클과 신성한 왕권

나는 발람 신탁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 신탁에 포함된 특정한 한 가지와 관련하여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왕권의 부상에 대한 언급입니다. 발람이 민수기 23:21에서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왕의 함성이 그들 중에 있도다." 이제 "왕의 함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 자신인가—"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의 호령이로다"—그것은 야훼를 신성한 왕으로 인정하는 외침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인간 왕입니까?

민수기 24장 17절을 보십시오. 발람은 그의 네 번째 신탁에서 "내가 그를 보아도 지금은 아니며 그를 바라보아도 가깝지 아니하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홀은 왕족의 상징입니다. "그가 모압의 이마와 셋의 모든 아들의 모든 두개골을 부수리니 에돔이 정복되리라. 그의 원수인 세일은 정복될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강성해질 것입니다. 한 통치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그 성읍의 생존자들을 멸할 것이다." 나는 17-19절에서 당신이 다윗 시대에 성취되는 예언적인 예언적 진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나온 홀이었고, 다윗은 모압과

에돔을 멸망시켰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다윗의 모든 정복이 나열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모압과 에돔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것은 발람의 신탁에서 이미 왕권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하로 들어갈 때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왕권이 부상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왕권은 이스라엘에 왕권이 세워질 때가 있을 것이라는 사전에 어떤 암시도 없이 이스라엘에서 왕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때로 돌아가면 주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에는 '왕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왕을 세울 때 왕이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예상됩니다. 그의 백성이 왕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람의 신탁에 대해 그 논평을 하고 싶었습니다.

시간. 모세의 마지막 날

1. 신명기

1. 신명기의 이름

앞으로 이동하고 싶습니다. h로 건너뛰세요. "모세의 마지막 날"은 두 개의 하위 항목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는 신명기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의 죽음입니다. 신명기 아래에는 세 개의 소제목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오경 또는 토라의 마지막 책인 "이름"입니다. 당신이 지적했듯이 히브리 전통에서 제목은 책의 첫 줄의 단어에서 가져옵니다. 이 경우 우리에게 친숙한 제목은 히브리 전통이 아니라 칠십인역입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제목은 신명기 1:1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말씀입니다"는 유대 전통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대한 우리에게 친숙한 제목은 실제로 신명기 17:18의 번역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는 몇 분 전에 신명기 17장 18절이 이스라엘에 왕권이 생겼을 때 왕이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왕의 법"이라고도 불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구절

, 신명기 17:18은 그 "왕의 법"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그[즉, 왕]가 그의 왕국의 왕좌를 차지할 때, 그는 자기를 위하여 두루마리에 기록할 것이니, [NIV는 말한다] 이 율법의 사본을, 레위인." 그래서 당신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그는 자신을 위해 율법의 사본을 써야 한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칠십인역에서 " 그는 [문자 그대로] 이 두 번째 율법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제 *미슈나* 히브리어로는 사본 또는 두 번째를 의미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70 인역이 이것을 "두 번째 법칙"으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책의 영어 제목이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법칙"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오역이며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는 그것이 항상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2법칙"으로 번역하면 이것이 제1법칙과 다른 제2 법칙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40년 후에 광야 방랑 중에 자란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민수기 중간에 그들이 믿음이 부족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정탐꾼들은 나가서 "그렇 리가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과 다른 율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율법의 성립을 자세히 살펴보고 출애굽기의 율법의 성립과 비교해 보면 어떤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요소가 있습니다. 십계명 중 일부는 신명기 5장에서 출애굽기 20장과 상당히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은 이것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과 어떤 식으로든 일치하지 않거나 반대되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과 일치하고 조화되는 방식으로 모세가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율법을 단순히 재진술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과 다른 물질적 본체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해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오해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제목이 이것이 단순히 첫 번째 법칙의 반복임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주어진 내용을 단순히 반복한다면 왜 레위기와 민수기를 읽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명기의 사마리아 오경 텍스트와 사해 신명기 두루마리에서 신명기를 출애굽기 및 민수기의 율법의 문구와 조화시키려는 시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흥미 롭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차이는 의도적으로 최소화되었습니다.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에서보다 사해 두루마리 본문과 사마리아어 본문에서 표현을 더 가깝게 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번역은 이 법의 "사본"이지 "두 번째 법"이 아닙니다. 왕은 이 법의 사본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칠십인역이 왜 이런 식으로 번역했고 왜 이것이 책의 제목이 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로 돌아가면 여전히 "법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이 율법의 등사본을 쓰시오." 무슨 법? 왕이 어떻게 다스리고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이 단지 왕의 법입니까? 아니면 "이 율법"이 오경 전체입니까? 아니면 단지 신명기의 책입니까? 거기에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저는 모세가 왕으로서의 책임을 맡을 때 그를 인도하기 위해 모압 평원에서 모세가 율법을 재언급한 이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명기 전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목에 대한 이 논의를 결론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신명기 17:18에서 이 구절의 번역에서 파생된 제목은 오해할 수 있는 제목을 제공했으며, 그런 식으로 의도된 제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본 구성 또는 파생된 텍스트에 있습니다. 이제 다른 선택은 유대인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입니다." 제대로 이해했다면, "신명기"라는 제목은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 "이것은 말씀이다"

보다 책의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더 많이 전달했을 것입니다.

비. 구약에서 신명기의 의미

비. "구약에서 신명기의 의미"입니다. 45쪽에 인용하면 오랫동안 Wheat on 대학 대학원 교수였던 Samuel Schultz의 흥미로운 책에서 발췌한 45에 대한 단락이 있습니다. 라는 책을 썼다. 신명기, 사랑의 복음. 그것은 신명기에 대한 기술적인 학문적 논의가 아니라 대중적인 책이었지만 그가 논의한 아이디어는 그 책에서 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볼 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신명기에 가겠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구약 연구에서 저자는 오경에 있는 것보다 앞선 것을 단순히 검토하거나 반복하는 책으로 신명기를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것에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책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어 신약성경에 따르면 거의 200번 인용됩니다." 그래서 그는 제 생각에 꽤 충격적이라고 생각하는 진술을 합니다. 당신이 그 진술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신명기가 구약의 계시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신명기를 넘어서면 모든 역사서(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등)의 신학과 개념이 신명기의 신학을 반영한다. 선지서에 나타난 신명기의 영향력은 종종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설정 및 배경

이를 위해 백그라운드에서 설정을 가져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놀라운 구원을 받은 후 시나이 산에서 주님과 성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은 자신의 계약에 수반되는 의무를 알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말한 대로 시내산을 떠났고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온 세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이제 그들이 진을 쳤던 모압 평야의 요단 강 건너편 가나안 땅의 경계에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모세가 하는 일은 이 새로운 세대를 위해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새로운 세대에게 주님의 길을 걷고 성약의 의무에 순종하라고 도전합니다. 나는 신명기가 합법적인 만큼 설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의 구조를 보면 모세가 전한 세 가지 주소가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고 있으며 언약의 의무를 지키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41쪽 b 단락에서 슬츠가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모세는 설교하고 있고 슬츠는 사랑이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이나 생활을 위한 율법, 선행, 심지어 높은 도덕 기준도 주요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본은 하느님과의 중요한 관계, 즉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에서 인간에게 중요한 다른 모든 고려 사항이 나왔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행동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돌보심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애굽에서 기적으로 구출됨으로써 온 민족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끊임없는 보살핌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온 마음을 다해 사랑과 헌신으로 응답해야 했습니다. 이 반응은 그의 전 존재의 모든 자원, 즉 그의 마음, 영혼, 정신 및 힘을 두드렸다. 이 사랑과 헌신은 배타적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신도 그러한 관계에서 허용되거나 용인될 수 없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문맥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메시지의 중심에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주의를 환기시킨 슬츠의 말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려던 때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은 그들을 그들의 관습과 신들과 그들의 종교 관습에 노출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놓인 질문은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관습을 채택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계속 여호와께 충성할 것인가였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른 후, 언약이 처음 세워진 후 이스라엘은 예배 문제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숭배하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모압 평원에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모압 평원

민수기 25장을 보십시오. 1절에 “이스라엘이 싯딤에 머무는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싯딤은 가나안 맞은편 모압 평지에 있는 곳입니다. 그 설정을 얻으려면 여호수아 2:11을 보십시오. “나의 아들 여호수아가 싯딤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몰래 보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을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싯딤에서 발행하여 요단으로 갔더라.”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준비를 하고 그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민수기 25장 1절에 “그 남자들이 싯딤에 있을 때에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에 자기들을 칭하는 여자들과 더불어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백성들은 먹고 이 신들 앞에 경배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브을 숭배에 가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니라.”

여기 모압 평야에 있는 이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교 숭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명기를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여호와께만 충실하고 마음과 뜻과 영혼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헌신은 그들을 위한 그분의 은혜롭고 강력한 행동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으며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은혜, 율법, 은혜입니다. 율법은 순종하고 축복을 기대하는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Schultz는 여기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에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아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야훼께만 있는 것입니다.

쉐마와 하나님의 사랑

신명기 6:4-5의 유명한 본문을 보십시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계명을 너희 마음에 새겨 두라. 자녀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십시오." 4절은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모호함이 있습니다. NIV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본에는 N 개의 텍스트 메모가 있는데 그 N 메모를 보면 4절에 "주 우리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니" 또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라" 또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저는 마지막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쨌든 사랑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슬츠에게 돌아가십시오. 단락 c, 페이지 45: "이스라엘 사람은 하느님과의 독특한 관계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수평적으로 표현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이웃을 사랑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예리한 깨달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동료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는 샘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종적이고 횡적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의 본질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사랑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수직과 수평의 관계입니다.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모세 율법 전문가는 사랑의 법이 다른 모든 고려 사항보다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과 동의했습니다. 신명기에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은 기록된 형태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의 본질을 나타낸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랑이 모세에게 계시되고 언급된 맥락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를 제공하는 이 책을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발견되는 이중 강조점,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자신처럼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Schultz로부터 받은 결론적 진술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책임이 호렘산에서 모세를 통해 인간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메시지의 본질을 구성했습니다."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를 주목하십시오. 여기가 신명기가 잘못 이해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deuter-onomios*, 또는 두 번째 법, 율법주의, 의식이 아닌 종교적 준수의 외적 세부 사항이 아닌 십계명 또는 신조의 율법 주의적 준수가 아닌; 이것들 중 어느 것도 기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과의 중요한 관계를 인생의 다른 모든 문제의 근본으로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료 인간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나는 모압 평야에서 모세의 설교를 반영하는 이 기본적인 관점에서 Schultz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6:4, 그러나 신명기 10:12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사랑하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신명기 30장

신명기 30:11 이하를 보십시오. 잠시 후 11장으로 돌아가겠지만 먼저 30
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은 네게 어려운 일도
아니요,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너희가
물기를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전하여 우리로 순종하게 하리요
바다 건너편도 아니므로 너희가 물을 것이니라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취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여 우리로 순종하게 하겠느냐 그것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므로 순종할 수 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멸망을 네
앞에 두었노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노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도를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며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네 마음이 돌이켜 순종치 아니하고 미혹되어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네게 선언하노니 너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리라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불리한 증인을 삼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노라.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불러라 여호와는 네 생명이시라 그가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장수하리라.” 그래서 강조는
책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나는 11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아주 간략한 설명을 제공하면서 책의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그 장이 시작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다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능하신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글썄, 구원이 있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가 행하신 이적과 애굽의 중심에서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온 나라에 행하신 일과 애굽 근대와 그 말과 병거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추격할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으신 것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신 일이니라 그것을 본 것은 당신의 자녀들이 아니라 당신이었습니다. 5절에서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위한 양식을 보았습니다. 그는 또 무엇을 제공했습니까? 6절에 징계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속한 생물. 이 일들을 본 것은 당신 자신의 눈이었습니다.” 이들은 21세 미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망한 사람들은 21세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였습니다.

이제 과거에 대한 지식, 즉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하고 유지하고 심지어 심판한 방식은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주님께 신실하다면 미래에 그분의 축복을 경험할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8절에 나오는 내용에 유의하십시오. 그들이 순종한다면 그들은 땅을 소유할 것이며 땅을 계속 소유할 것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오래 살리라” 그리고 그들이 10-17절의 명령을 지키면 그들은 그 땅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네가 얻으려고 들어가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네가 씨를 뿌리고 물을 채소밭과 같이 걸어서 물을 대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성실히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내가 너희 땅에 때를 따라 가을비와 봄비를 내리리니,
 그리하여 너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모을 수 있게 하여라. 내가 너의
 가축을 위하여 밭에 풀을 돋우리니 네가 먹고 배부르리라.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절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리니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 그들은
 땅을 소유하고 유지할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하면 그 땅 거민을 쳐서 이기리라 2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네가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 너는 너보다 크고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밭을 디디는 모든 곳이 네 것이 되리니 네 영토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아무도 당신을 대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온
 땅으로 너를 두려워하게 하시며 이것이 이스라엘 앞에 제시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어야 합니다.

축복과 저주

그러나 신명기 11:26-32에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에게 열려 있는
 대안이며 선택은 그들의 몫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불순종하면 그의 저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6절 이하를 봅시다.
 모세가 말하였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를 떠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시다시피 이 산들은 요단 건너편 길 서쪽 해 지는 쪽 모레 큰 나무 근처 길갈 근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영토에 있습니다. 당신은 요단강을 건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 거할 때에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포하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모세의 도전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그의 저주와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도전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한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경험을 이해해야 하는 관점을 제공합니다. Joshua의 생애 동안 상황은 꽤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책인 사사기를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는 주님과 그의 심판에서 돌아서는 이 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민족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분은 그들을 구원하시며 평화와 안식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다시 사이클을 거치는데, 이는 단지 사이클의 반복이 아니라 실제로 하향 나선입니다.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사사기가 끝날 무렵에는 모세가 제시한 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러한 패턴을 따랐기 때문에 신명기는 구약의 나머지 책인 역사서와 예언서 모두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의 조항은 이스라엘이 주님의 길을 걸으며 주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했는지 여부에 따라 저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지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을 언약의 길로 돌아오게 하고 그의 기초에 충실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돌아섰기 때문에 언약의 심판의 저주를 선언합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구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뒤따르는 모든 것의 기초를 설정하는 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11장에서 조약 구조로 되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 구조를 따랐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11장은 실제로 기본 규정입니다. 충성의 근본적인 의무인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11장의 기본 규정에서 이어지는 세부 규정으로 이동하면서 12장이 시작되는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은 “너희가 지켜 행할 규례는 이러하니라”로 시작합니다.

귀하의 개요에 주목하십시오. 저는 신명기가 기록된 날짜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에 그것에 대해 이미 조금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간에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Dawn Cianci와 Stephanie Fitzgerald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러프 편집: Ted Hildebrandt

Elizabeth Fisher의 최종 편집

Ted Hildebrandt의 재연설